

KOSPI 7,080pt의 향방: 매크로 인플레이션과 AI 모멘텀의 줄다리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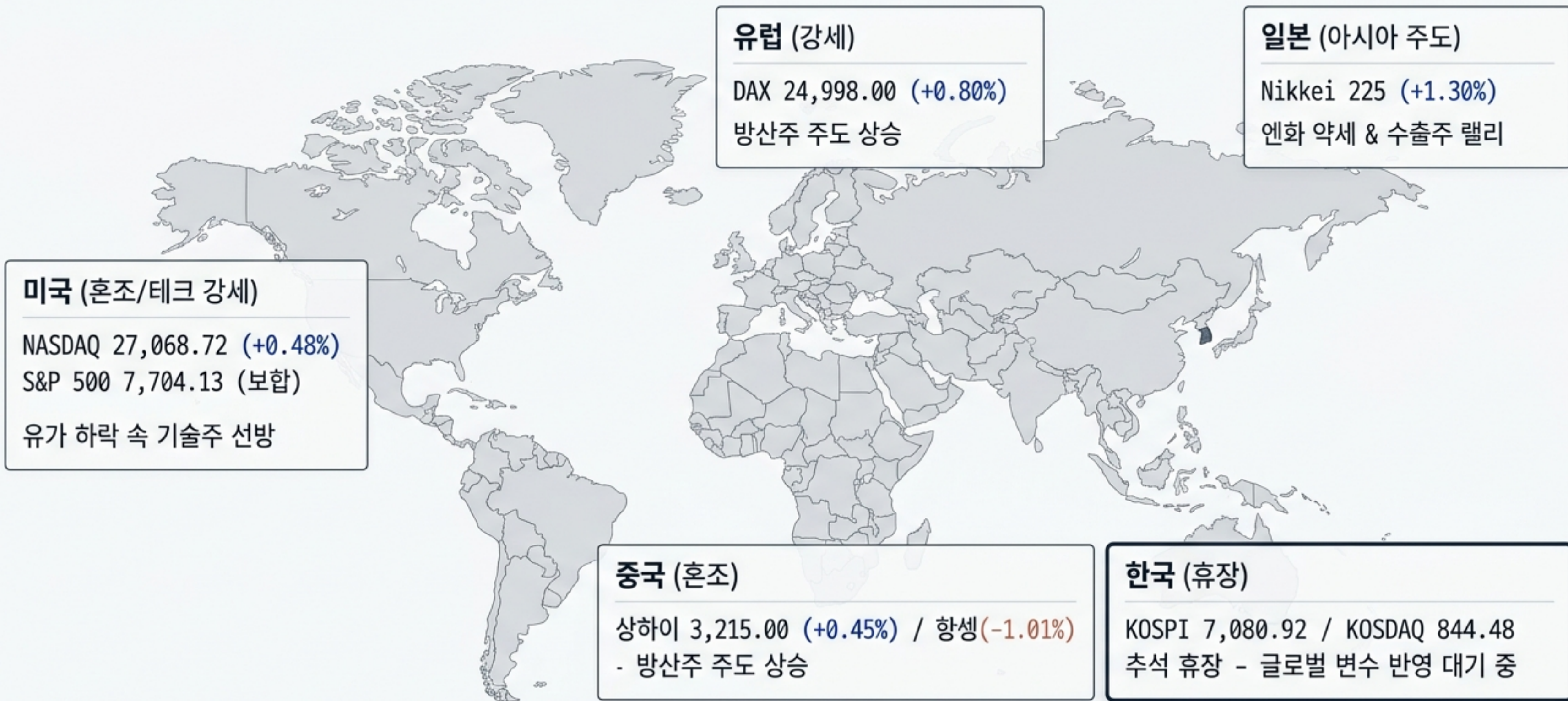
2026.09.28 글로벌 시장 브리핑 및 주간 액서너블 투자 전략

DATE: 2026-09-28T07:03:21+09:00

STATUS: KOR MARKET PAUSED (CHUSEOK)

GLOBAL FORCES DETECTED: FICC INFLATION vs AI RALLY

Global Market Snapshot: 폭풍 전야의 글로벌 증시



비트코인 \$67,350 (+\$1,240, ETF 순유입 지속)

[Force 1] FICC발 인플레이션 경고음: 솟구치는 매크로 압력



WTI 원유

\$92.41 (+\$2.62)

중동 정세 불안 및 OPEC 감산 연장
기대로 \$90선 돌파. 19주 연속 하락한
국내 기름값과 극심한 괴리 발생.



안전자산: 금 (XAU)

\$500 (+\$18)

위험회피 심리 확대로 뭉치돈 유입,
신고가권 랠리 지속.



미 국채 10년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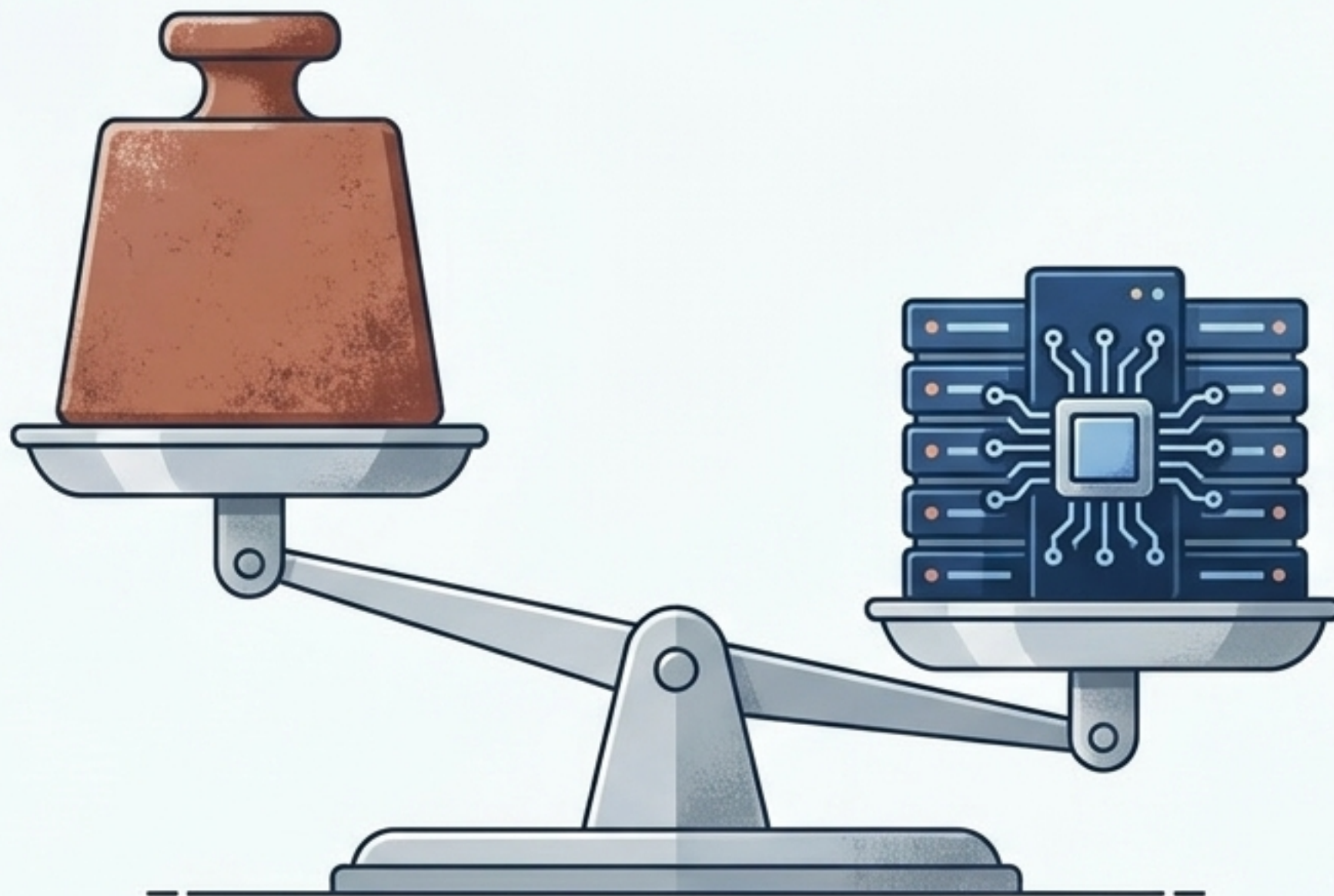
5.192% (+5bp)

FOMC 매파 기초 재확인.
높은 변동성 속에 5.19% 돌파.

[Force 2] 고금리를 짓누르는 AI 셈법: 할인율보다 돈 버는 속도가 빠르다

무거운 할인율
(미 국채 10년물 5.192%)

통상적으로 기술주
밸류에이션을 무너뜨려야
하는 살인적 금리 수준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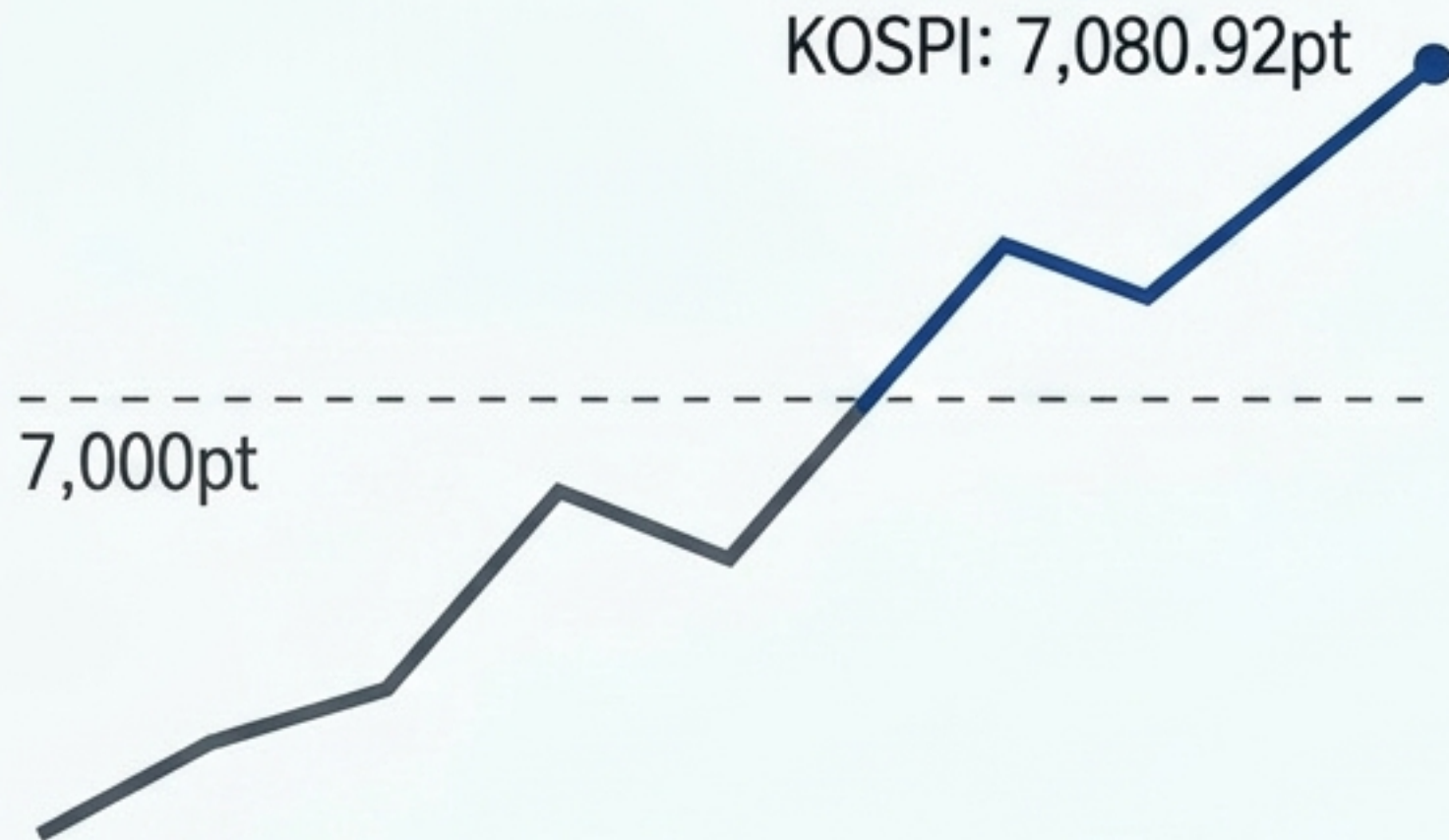
**폭발하는 AI 수익성과
블랙홀 수급**

- 글로벌 자금 미국 주식
1년간 1,280조 원 순매수
(역대 최대 규모).
- 오우라(Oura) 스마트링
나스닥 기습 상장 등
신산업 패러다임창 지속.

Key Insight: 155년 통계가 증시 과열을 경고하지만, 시장은 AI 기업들의
이익 창출 속도가 금리 부담을 상쇄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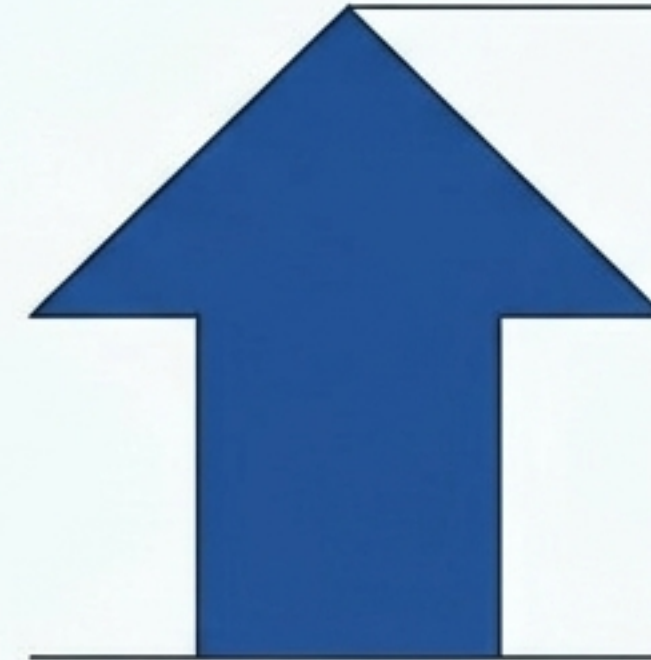
KOSPI 7,080pt의 딜레마: 지수 안착을 위한 조건

Index Context



추석 이후 역사적으로 코스피는 대체로
상승 흐름을 보였음.
미국 24시간 거래 확산에 따른
글로벌 '시간 전쟁' 속 대응력 주목.

Sector Divergenc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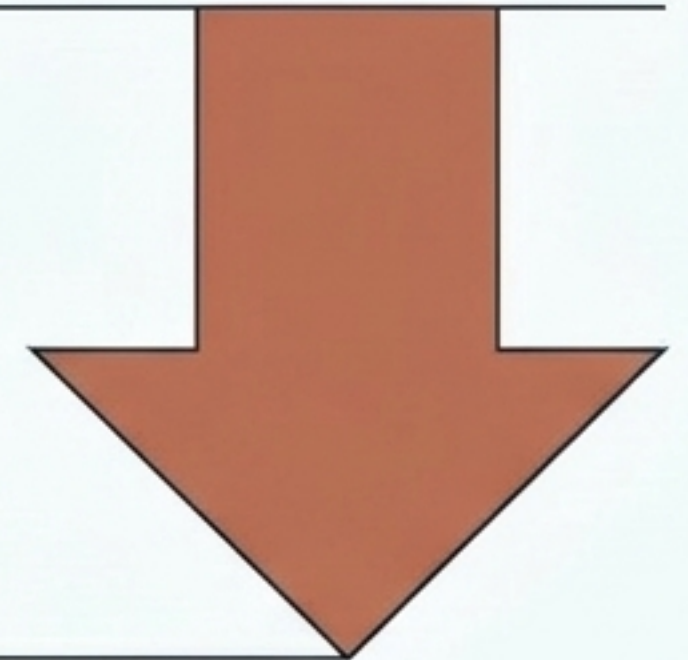


AI/반도체 부품주

주가 조정에도 AI 서버용
부품 수요 탄탄 평가로
목표가 상향 지속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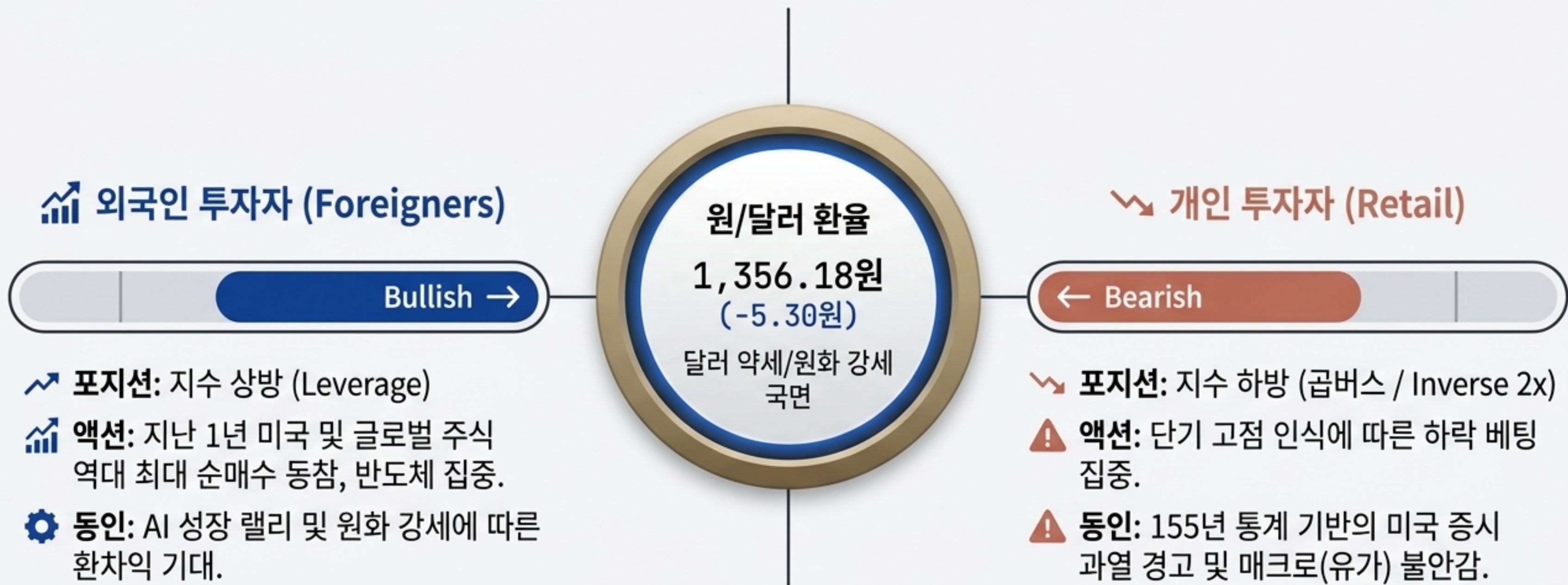
정유·석유화학

유가 상승에도 반도체
쏟림 현상과 실적 부진으로
시장 주도권에서 소외.



수급의 양극화 매트릭스: 스마트머니 vs 역발상

스마트머니 vs 역발상



외국인은 '레버리지'에, 개인은 '곱버스'에 베팅했다. 이번 주 방향성이 승자를 결정한다.

The Catalyst Heatmap: 시장의 뇌관을 건드릴 주간 타임라인

화(9/29) ~ 수(9/30)

FOMC 멤버(Bowman, Barkin) & ECB 총재(Lagarde) 연설 릴레이.
(매파적 기초 확인 구간)

화(9/29) ~ 수(9/30)

목(10/1) ★★★

[FIREWALL]
캘린더의 80%가 집중된
슈퍼 목요일.

한국 소매판매/산업생산,
중국 PMI 발표 대기

금(10/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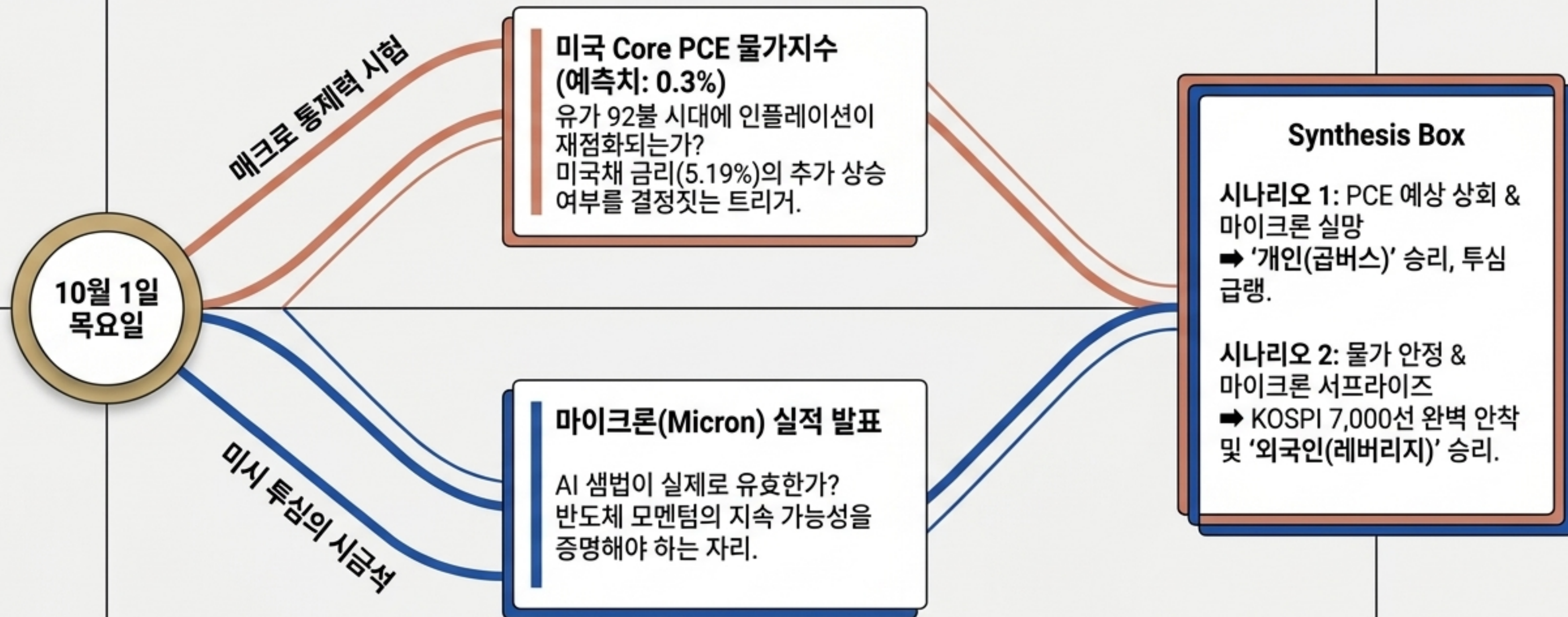
한국 수출입 데이터
(수출 68.7% 컨센서스)

미국 ISM 제조업 PMI
(예측 55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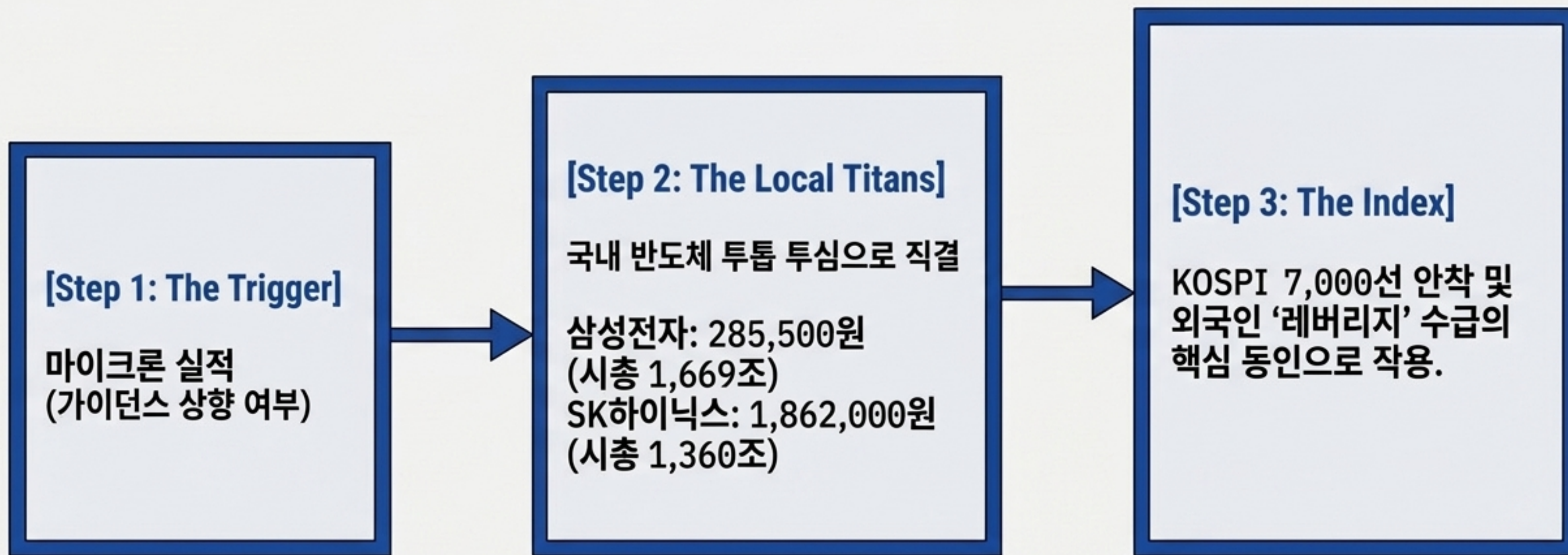
금(10/2)

목요일에 예정된 2개의 거대 이벤트가
하반기 시장을 결정짓습니다.
다음 슬라이드에서 상세 분석 ➡

목요일의 분수령 (The Thursday Fulcrum): 두 힘이 만나는 특이점



반도체 모멘텀 도미노 (The Catalyst Flow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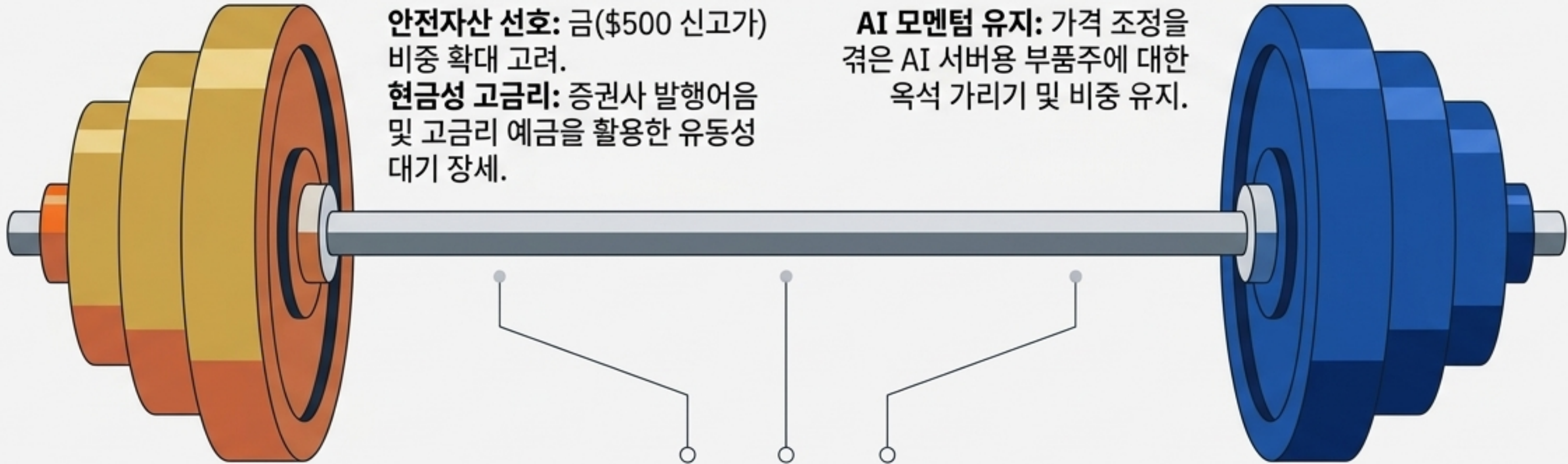
Note: 정유/석유화학 실적 부진을 상쇄하고 지수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섹터의 도미노 방어가 필수적.

단기적 방어
(매크로 헷지)

안전자산 선호: 금(\$500 신고가)
비중 확대 고려.
현금성 고금리: 증권사 발행어음
및 고금리 예금을 활용한 유동성
대기 장세.

구조적 성장 공격
(마이크로 랠리)

AI 모멘텀 유지: 가격 조정을
겪은 AI 서버용 부품주에 대한
옥석 가리기 및 비중 유지.



3대 핵심 관전 포인트

1. 목요일 PCE 물가와 마이크론 실적 확인 전까지는 무리한 방향성 베팅 자제.
2. 환율(1,356원) 하락세 연장이 외국인 역대급 순매수를 이어가게 할지 추적.
3. 유가(\$92) 급등이 유발할 금리 변동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.